

생성형 AI의 등장... 새로운 창조적 예술시대 도래

조선대 미술관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2024 조선대학교 장미주간(16~20일)을 맞아 기획전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오는 30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은 AI 생성 이미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관심이 많은 작가 8명을 선정, AI 이미지 시대 예술의 가치 및 정체성은 무엇인지 보여준다. 회화·사진·영상·설치 등 AI 생성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부터 인간의 수행이 담긴 작품까지 총 3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AI 시대, 예술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AI 이미지 시대, 작품 창작에 미치는 영향 △AI 이미지와 본인의 작품에 대한 가치 △만약 본인의 작품에 AI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할 용의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전시 작품을 통해 관람객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 4개의 질문을 8명의 작가(강운·고차분·김형숙·문선희·박상화·신도원·신호운·정광희)에게 제시했고, 그 질문을 토대로 전시를 구성했다. 8명의 작가들이 써 내려간 글과 작품은 서로 다른 특색을 보

30일까지 'AI 회화' 등 선배 기후위기 상상 속 광주 눈길 수행적 시간 담은 작업처럼 기계가 흉내 못내는 작품도

여주며, 이는 AI 이미지 시대 예술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으로 이어진다.

강운, 김형숙, 박상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구름 작가로 불리는 강운 작가는 '공기와 꿈' 연작을 세 가지 형태로 보여준다.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내는 추상예술과 AI 생성형 창작 도구를 활용해 구름에 형상을 형성한 수증기 입자 단위를 픽셀로 해석한 작품, 그리고 챗GPT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인 DALL-E를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했다. 작가는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새로운 문화기술과 접목해 사유한다.

김형숙 작가는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픽셀화해 해체한 영상작업을 선보인다. 해



박상화 작 미래도시-광주. 조선대 미술관 제공

체된 픽셀은 또 다른 형태로 조합돼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영상 속 이미지들은 하나의 작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해주며, 픽셀 하나하나에 집중,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논한다.

박상화 작가의 '미래 도시-광주'는 AI가 상상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펼쳐진 광주의 풍경 속 옛 전남도청과 그 주변의 모습이다. 기후위기, 전쟁, 인류멸망 등의 현안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일 수 있는 AI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가, 고민한다.

수많은 작은 집을 그려나가며 이미지를 형성화해 나가는 고차분 작가는 캔버스에 거칠게 지어진 집의 형상을 잘라내고 갈

로 도려내는 행위를 반복한다. 이는 인간이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인고의 시간들로 비춰지며, AI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진정성이 담겨있다.

문선희 작가의 '거기 뭐 하세요' 시리즈 총 11점은 고공농성이 있었던 산업구조물을 심상적 풍경 위로 옮겨 온 작업이다. 작가는 고공농성이 있었던 산업구조물 100여 곳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록했다. 이는 AI가 활용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안의 소스들로 작가의 유일한 기록물이다. 이 기록물을 통해 작가는 세상에 거대한 잡음으로 우리가 듣지 못했던 소수의 사람들 목소리, 그리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그들의 외로운 마음을 포착한다.

신도원 작가는 최근 한국 이야기, 전설 등에 관심을 가지고 AI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심정전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배경 그림은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그려냈다.

정광희 작가는 점 하나, 획 하나, 붓 끝에 감정을 집중해 드러내는 서예의 원리로 작업한다. 그의 작품은 이처럼 자연스러운 수행의 과정이 담겨있다. 작가는 AI

지배력의 반대지점에서 아날로그적 사고로 천천히 자신을 들여다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의 길을 걷는다.

신호운 작가의 '본질은 없다' 연작은 인간의 본질을 묻는다. 그는 존재에 대한 고민을 철학적 질문을 통해 사유하며 이 부분은 AI가 생산해낼 수 없는 창조의 영역임을 보여준다.

장민한 조선대 미술관 관장은 "AI 이미지의 출현은 19세기의 카메라의 발명 이상으로 미술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카메라의 발명으로 인해 사진이 아닌 미술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고 그 결과 추상미술이 출현한 것처럼, AI의 등장은 미술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며 "이번 전시는 긍정적이든 혹은 부정적이든 AI의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작품을 보여준다. AI 예술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주말은 휴관하나, 조선대학교 장미주간 기간인 18, 1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광주예술의전당이 국악그룹 타루의 '벨벳 토끼' 공연을 오는 15일 소극장 무대에 올린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진짜가 되고 싶었던 토끼 인형의 이야기

국악그룹 '벨벳 토끼' 공연 15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광주예술의전당은 아트위크 기획공연으로 어린이 소리극 '벨벳 토끼'를 오는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선보인다. 국내 수준급의 젊은 국악인들이 모인 그룹 '타루'만의 색깔로 풀어낸 어린이극 벨벳 토끼는 판소리, 민요, 전통연희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어린이극 '벨벳 토끼'는 2021년 서울아시테지겨울축제에서 서울연극제 대상을 수상하며 장르를 뛰어넘는 작품성을 인정 받았다. 영국 작가 마저리 윌리엄스가 쓴 'The Velveteen Rabbit: How toys become real?'을 원작으로 하며 영어권에서는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극, 무용극,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타루가 탄탄한 스토리를 토대로 최초 무대화했다.

'벨벳 토끼'는 애착 인형과의 경험을 통해 사랑, 존재, 관계의 의미에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스토리이다. 보들보들한 벨벳 토끼 인형은 움직이고 소리를 내는 장난감들 사이에서 놀림을 당하다가 말 인형에게 '진짜'가 되는 순간에 대해 듣게 된

다. 어느 밤, 아이의 곁을 토끼가 지켜주고 아이와 토끼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친구가 된다. 아이의 사랑 덕분에 벨벳 토끼 인형은 '진짜'가 된다.

이번 공연에는 타루의 단원 송보라, 공미연, 심소라 그리고 연희관 장우찬, 김태정이 출연한다. 송보라 소리꾼은 타루의 수석단원으로 중견 소리꾼의 공력을 품고 있으며 창작과정에서 작창감독 역할을 맡고 있다.

심소라 소리꾼은 동편제 흥보가, 동초제 춘향가 완창회를 통해 전통 판소리 실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극 작업을 통해 젊은 국악인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공미연 소리꾼은 타루의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판소리와는 또 다른 전통 소리의 다채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희관 장우찬은 현재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상임단원이며, 수준급의 버나돌리기와 재담 등의 실력을 통해 총체극 '벨벳 토끼'의 완성도를 보여준다.

연희관 김태정은 연희장작그룹 '놀플러스'의 연희감독으로 '연희경', '합진아비' 등의 작업에 참여했다. **도선인 기자**

'짚풀'을 닮은 5·18의 나눔과 연대 정신

5·18기획 '짚풀 같은 사람들...' 10일부터 비움박물관 공예전 '5·18문학 지형도' 함께 소개

비움박물관은 5·18특별기획전 '짚풀 같은 사람들, 삶의 무늬와 영혼의 빛'을 10일부터 연다. 5·18의 나눔정신을 닮은 짚풀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선보인다.

주요 전시품은 비움박물관 소장 짚공예품과 지난해 광주 북구 건국동 주민자치회에서 기증받은 짚풀 공예품이다. 소박하지만 열정적인 광주시민들과 닮은 짚풀 공예품을 통해 5·18 광주정신을 되돌아보

고자 한다.

짚풀은 곡식의 알곡을 다 떨어진 줄기에서 나온 풀이다. 우리 조상들은 짚풀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집을 짓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삶을 위해 끝까지 다 쓰여지는 짚풀의 의미와 가치를 한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광주 시민정신과 연결한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뭇을 받던 자발적이고 성숙했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이 있었다. '짚풀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누리게 된 지금의 일상과 자유를 현재의 시민들과 사유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자 한다.

또 이번 전시에서 지난해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이 작업한 박물관 소장품에 관한 소설 '살림살이와 삶'과 연구단의 디지털 큐레이션 작업인 '5·18문학의 지형도'를 함께 소개한다.

지역사회와 연대해 현대인의 관점에서 풀어낸 박물관 소장품과 5·18문학의 갈래를 글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전시 기간 동안 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인 '치유의 숲'을 운영하며 전시가 개막하는 10일에는 주먹밥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 **도선인 기자**

회색빛 도시에 빛나는 빨간풍선의 우정과 위로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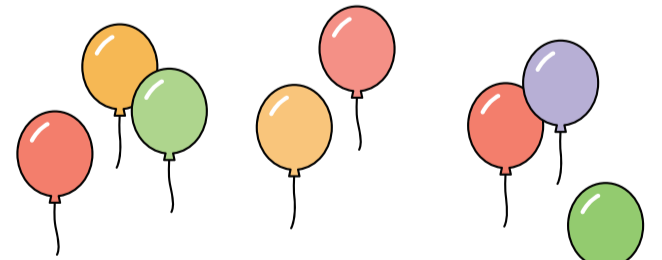
시네마 음악극 '빨간풍선' 25~26일 ACC 어린이극장

"빨간풍선을 따라 동심으로 떠나는 흥겨운 여행 길, 함께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4년 ACC 어린이극장 공동기획(이하 '렛츠 플레이') 첫 작품으로 오는 25~26일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시네마 음악극 '빨간풍선'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6살 파스칼과 그의 유일한 친구 '빨간풍선'의 우정을 다룬 이야기이다. 동명의 원작 '빨간풍선(Le ballon rouge)'은 프랑스 거장 알베르 라모리스(Albert Lamorisse) 감독의 단편영화로 칸 영화제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과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빨간풍선'은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밴드 '신나는섬'만의 상상력 가득한 음악을 더해 동화 같은 시네마 음악극으로



재탄생했다. 풍성한 음악과 배우의 몸짓은 스크린 속 2차원 세계를 입체화시키며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이다. 이 작품은 1950년대 프랑스와 2024년의 한국, 과거와 현재, 판타지와 현실, 스크린과 무대를 넘나들며 흥겨운 연주와 형형색색의 풍선이 어우러진 파스칼의 여행길로 관객을 초대한다.

ACC 렛츠 플레이는 국내 및 지역 예술 단체와의 상생을 통해 극장과 어린이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연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다. 올해는 종로 아이들극장과 협력으로 총 5편의 공연을 선정했다. 5월 시네마 음악극 '빨간풍선'을 시작으로 8월 고전동화를 재해석한 '삼양동화'와 '달님이 주신 아이', 9월 그림자 인형극 '이야

기 속! 이야기야!', 12월 국악 인형극 '연희도깨비'가 공연된다.

'빨간풍선'은 오는 25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26일 오후 2시 등 총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5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며, ACC 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 가능하다.

한편, ACC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소재로 다양한 놀이와 체험·예술적 창작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어린이 문화발전소이다. **도선인 기자**